

다이너마이트

김민령, 김선정, 김중미, 김태호, 박하익, 박효미, 이금이 글 | 이윤희 그림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초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학년 및 단원:

5, 6학년 국어, 독서 단원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과 교육의 성취 기준:

(6국05-05)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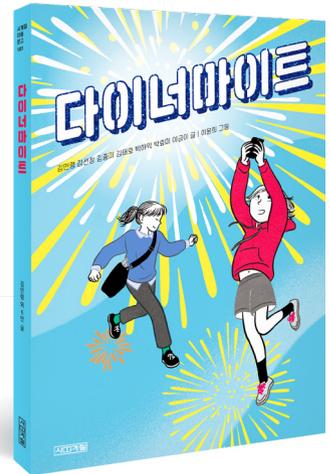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주제어: #기후위기 #인간성 #판타지 #성폭력 #감정 #말놀이 #책놀이 #다문화 #편견 #아동학대 #이웃 #이성교제 #추론

분야: 한국 창작동화, 단편동화, 판타지동화

활용: 질문수업(하브루타), 토의·토론, 교육연극

작성: 창원 풍호초등학교 박경미 선생님



■ 활동 목표

-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문장을 찾고 떠오르는 질문을 나누며 대화할 수 있다.
- 책을 읽고 내가 만약 등장인물이라면 어땠는지 생각해 보고, 뒷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
- 단편동화를 읽고 가장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 지도안 작성 의도

『다이너마이트』는 단편동화집이다. 단편동화는 장편동화만큼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익숙한 갈래는 아니다. 그러나 단편동화는 다양한 주제가 담긴 짧은 이야기 여러 편을 한 권의 책에서 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만약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단편동화를 해 보지 않았다면, “『다이너마이트』로 해 보세요.” 하고 자신 있게 권하고 싶다. 이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다루기보다는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감명받은 작품 하나만 깊이 있고 여유롭게 다루었으면 한다.

이 책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이 담겨 있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기후위기, 성폭력, 아동학대 등 다소 무거운 주제에서부터 이성 교제 같은 가벼운 주제까지.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으며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 갈 방법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과 토론의 방법으로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깊이 있게 읽어 볼 수 있도록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지도안에 제시된 내용은 예시이니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해서 더 풍성한 독서 수업을 만들어 보셨으면 한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8차시
읽기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과 인사하기 - 표지 살펴보기 - 작가 소개 읽기 - 여는 글 읽기 - 차례 살펴보며 내용 예상하기 	1차시
읽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독하기 - 인상 깊은 글귀 줄 긋거나 메모하며 읽기 - 인상 깊은 문장 옮겨 쓰기 	2차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편 고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단편과 그 이유 말하기 -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단편 고르기 2. 함께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기 	2차시

단계	활동 내용	총 8차시
읽은 후	<p>★ 선택 활동</p> <p>「고양이가 한 마리도 오지 않던 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2. 증거를 찾아라! 3. 해시태그를 달아라! <p>「구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타지 세계를 구축하라! 2. 나도 조앤 롤링! <p>「나의 탄두리 치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약에 나라면 2. 100자로 요약하라! <p>「상병차포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2. 오! 재미있는 오행시 쓰기 3. 신명 나는 장기 한판! <p>「다이너마이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2. 만약에 나라면 3. 사람책 도서관 <p>「멍한 하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2. 핫시팅 3. 뒷이야기 상상하며 이어 쓰기 <p>「5학년 1반 연애편지 사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2. 범인을 찾아라! 3. 핫시팅 <p>★ 공통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책 소개하기 2. 에세이 쓰기 	3차시

읽기 전

● 책과 인사하기

본문을 읽기에 앞서 책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책 표지, 책날개, 여는 말, 차례를 살펴보며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

-표지 살펴보기

글쓴이, 그림이, 출판사, 앞표지 그림을 살펴보며 첫 느낌, 떠오르는 생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책 제목과 같은 제목의 방탄소년단 노래 <Dynamite>를 떠올린 학생이 있다면, 노래도 들으며 신나게 읽기 전 활동을 시작한다.

-작가 소개 읽기

이 책은 일곱 명의 작가가 참여한 단편동화집이다. 학교 도서관이나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여 김민령, 김선정, 김중미, 김태호, 박하익, 박효미, 이금이 작가를 검색해 본다. 작가의 다른 책을 읽어 본 학생이 있다면 기억나는 대로 간단한 소감도 들어 본다.

-여는 글 읽기

『다이너마이트』는 사계절출판사의 사계절아동문고 100권 기념 작품집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내일을 가늠해 보길 바라는 의미를 담아 기획한 책임을 알 수 있다. 여는 글을 함께 읽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바뀐 일상의 변화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차례 살펴보며 내용 예상하기

차례에 실린 단편동화의 제목과 삽화를 살펴보며 내용을 예상해 보는 활동을 한다. 책 뒷표지에 실린 ‘책 속 한 문장’ 미리보기는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읽는 중

● 목록하기

학생들이 단편동화집에 수록된 모든 작품을 꼭 읽어 볼 수 있도록 수업시간에 소리 내지 않고 읽을 시간을 제공한다. 인상 깊은 문장이나 장면에 표시하거나 특히 마음이 드는 문장이 있다면 옮겨 써 보는 것도 좋다.

선생님께 책을 읽으며 인상 깊은 문장이나 장면을 표시해 두면 질문을 만들거나 토의·토론을 할 때 편리하다.

1. 단편 고르기

각자 책을 다 읽은 뒤, 친구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단편을 고릅니다. 그 단편을 고른 까닭을 돌아가며 말합니다.

선생님께 이때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읽을 단편은 가장 인상에 남는 작품으로 고르도록 한다. 나 혼자 읽기에 어려웠던 것도 좋다. 혼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차 알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함께 읽기

다양한 읽기 방법으로 소리 내어 함께 책을 읽습니다.

선생님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모둠과 모둠으로 번갈아 읽기를 할 수 있다. 짝끼리 또는 모둠 안에서 돌아가며 읽기를 할 수 있다. 한 번 읽을 분량은 한 문장, 한 문단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읽고 싶은 만큼 변화를 주어 읽을 수 있다. 대화가 많은 글은 역할을 정해 읽기도 한다. 한 가지 방법으로 책을 읽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 다양한 방법으로 읽으며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읽기 방법을 탐색해 보는 것도 좋다.

읽은 후

★ 선택 활동

「고양이가 한 마리도 오지 않던 날」 (#기후위기 #인간성)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마음이 머물렀던 곳, 궁금했던 것을 떠올려 질문을 씁니다. 서로의 질문을 듣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은 질문을 골라 이야기를 주고받아 봅시다.

인상적인 문장(쪽)	
내가 만든 질문	
함께 고른 질문	
내 생각	
친구들의 생각	

선생님께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책의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 작가에게 궁금한 부분 등을 표시해 둔다. 표시해 둔 것을 바탕으로 먼저 개별 질문을 만들고 친구들과 질문을 공유하면서 질문에 대해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 본다. 나온 질문 가운데 토의·토론 주제가 될 만한 것으로 토의·토론을 할 수도 있다.

<예시>

인상적인 문장(쪽)	「고양이가 한 마리도 오지 않던 날」 “우리도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쯤은 살릴 수 있겠지.” (33쪽)
내가 만든 질문	두 달째 비가 내려 이모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고른 질문	두 달째 비가 내려 이모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내 생각	앞에 다리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려 주려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은 빗속에서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달려오는 차에게 위험을 알려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우산이나 수건을 주고 싶다.
친구들의 생각	같은 방향으로 피신을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재 위치와 교통 상황을 라디오 교통 정보 프로그램에 제보한다.

【참고】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을 만든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인상적인 작품	「고양이가 한 마리도 오지 않던 날」
내가 만든 질문	작가는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질문을 만든 이유	두 달째 비가 계속되어 피신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돕는 모습이 계속 나와서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함께 고른 질문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
그 질문을 고른 까닭	작가가 의도한 이 작품의 주제가 있지만, 우리 반 친구들은 이 작품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서.

2. 증거를 찾아라!

책을 읽으며 '재난 상황임에도 살 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을 찾아봅시다.

<예시>

- (14쪽) 배고픈 고양이를 찾아다니는 고양이 할머니
- (24쪽, 28쪽) 무너진 다리를 알려 주는 사람(붉은 옷을 입은 사람)
- (31~32쪽) 김밥을 나눠 주는 뒤 차 아주머니
- (33쪽) 고양이 데려가는 것을 반대하던 엄마가 고양이를 허락하는 장면

3. 해시태그를 달아라!

이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에게 이 책의 주제로 해시태그를 달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시태그를 달고 싶나요?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해시태그	까닭

<예시>

- #기후위기: 두 달째 비가 계속 오는 재난 상황이라서
- #기후난민: 해가 나는 남쪽 이모네로 피난을 가는 가족의 모습에서 난민의 모습이 떠올라서
- #인간성: 재난 상황에서 인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감동적이어서
- #연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돕는 모습이 잘 나타나서

「구멍」 (#판타지)

1. 판타지 세계를 구축하라!

	「구멍」 속 설정	내가 만든 판타지 세계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는 문	- 수납장 맨 아래 칸 구멍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	- 시와 분의 숫자가 같은 순간을 우연히 볼 때	
현실 세계(주인공의 상황, 고민)	- 절친은 멀리 이사 갔다. - 엄마와 아빠의 재택근무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다. - 온라인 수업으로 새 학년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	
판타지 세계 (주인공의 바람)	- 5학년 3반 교실과 복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 새로 사귄 친구들과 생일 선물을 의논한다. - 생일 파티 하고 실내 놀이터에도 갈 것이다.	

2. 나도 조앤 롤링!

내가 만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짧은 이야기를 써 봅시다.

「나의 탄두리 치킨」 (#성폭력 #감정)

1. 만약에 나라면

만약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 봅시다.

질문1: 다른 사람이 내 허락 없이 나의 신체를 만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질문2: 내가 이동완이라면, 정영주에게 뭐라고 말해 주고 싶나요?

2. 100자로 요약하라!

일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정리된 사건입니다.

순서	일어난 사건
1	2반과 토너먼트 경기에서 정영주의 도움으로 우리 반이 축구 경기에서 이겼다.
2	7월 1일, 4반과의 결승전, 정영주의 활약으로 우리 반이 축구 경기에서 이겼고, 나(이동완)는 정영주에게 반했다.
3	정영주에 대해 조사해서 일주일 동안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가졌고, 정영주에게 사귀자는 고백을 하였다.
4	나는 정영주와 사귀기로 하였다.
5	사귀기로 한 지 한 시간쯤 뒤, 정영주가 윤민준의 급소를 찼다.
6	지호에게 윤민준 엄마가 학폭위를 열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7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나는 혼란스러웠고, 반 아이들은 남자 편과 여자 편으로 나뉘어 냉전을 했다.
8	윤민준이 정영주의 엉덩이를 일부러 만져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9	학교에 성폭행 사건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나는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말한다.
10	정영주와 나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도 못 해 보고 끝이 난다.
11	정영주는 용감하게 사과를 요구했고, 윤민준은 반 아이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한다.
12	공개 사과가 있던 날, 나는 운동장에서 윤민준에게 주먹을 날리고, 그 와중에 휴대폰이 박살 난다.

「상병차포마」 (#판타지 #말놀이 #책놀이)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질문1: 여러분이 들은 이야기 가운데 기억에 남아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질문2: 여러분은 3월이 되어 낯선 얼굴, 낯선 선생님 등 낯선 환경에 놓이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질문3: 여러분이 좋아하는 놀이나 게임은 무엇이며,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2. 오! 재미있는 오행시 쓰기

2-1. 장기 말에 적합한 글자와 일어난 사건 사이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장기 말 글자	일어난 사건
상	징검다리 모양이 상의 움직임과 같다. 초등학교 들어와서 처음 상을 받았다.
병	징검다리 모양이 병의 움직임과 같다. 병이 나서 보건실에 가서 누워 있었다.
차	징검다리 모양이 차의 움직임과 같다. 수학 시간에 분수의 차를 배웠다.
포	징검다리 모양이 포의 움직임과 같다. 선생님과 장기 두다가 이기기를 포기했다.
마	징검다리 모양이 마의 움직임과 같다. (모든 일은) 다 마음에 달려 있다.

2-2. 장기 말 글자나 윷놀이에 쓰이는 글자로 줄거리가 있는 오행시를 만들어 봅시다.

장기 말 글자	오행시
상	
병	
차	
포	
마	

윷패	오행시
도	
개	
걸	
윷	
모	

<예시>

도저히 마음 편히 못 놀겠다.

개가 자꾸 놀아 달라고 날 귀찮게 해.

걸리버! 나 좀 놀고 너랑 공놀이 해 줄게!

웃놀이가 얼마나 재미있다고.

모? 옷 하나를 걸리버가 벌써 물어 갔다고? 걸리버!

3. 신명 나는 장기 한판!

장기 말을 움직이는 방법을 익혀 친구와 장기를 해 봅시다.

선생님께

장기판과 장기 말 등 준비물을 갖추기 어렵다면, 컴퓨터로 장기 게임을 해 볼 수도 있다.

「다이너마이트」 (#다문화 #편견)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질문1: 도시 개발과 환경 보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110쪽

할머니네 집은 우리 집과 신도시 사이에 있다. 원래 우리 할머니네 집 너머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저어새 서식지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거대한 아파트 숲이 들어섰다. 나는 저어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할머니는 봄마다 찾아오던 저어새 가족을 여럿 보았다고 했다. 이제 군데군데 남은 논에 왜가리와 백로는 오지만 저어새는 안 온다. 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남은 논마저 아파트나 공장이 되면 왜가리나 백로도 없어질지 모른다.

질문2: 인간이 점차 동물의 서식지를 빼앗으면서 생기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3: ‘남자답지 못하다’, ‘여자답지 못하다’와 같은 말로 내 행동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나요?

124쪽

“저는요, 여자 같다는 게 뭐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놀릴 때마다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그냥 거친 게 싫어요. 욕하는 것도 싫고, 싸움도 싫어요. 제가 운동을 싫어하는 건 잘 못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게 싫어요. 이기려고 잘하는 애들끼리만 편먹으려고 하고, 못하는 애들은 무시해요. 그게 남자다운 거라면 저는 남자답고 싶지 않아요. 남자애들은요, 이상하게 나쁜 거를 자꾸 여자애들이랑 연결시켜요. 남자애들 사이에서 여자애 같다, 계집애 같다는 말은 욕이거든요. 그런 말 안 들으려고 약한 남자애들이 쉰 척하고, 일부러 더 막 욕하고 그래요.”

2. 만약에 나라면

여러분이 하루나 도훈이라면 친구들의 괴롭힘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13쪽

4학년 때였다. 우리 반 ‘핵인싸’ 애들이 자기들 단체 채팅방에 하루를 초대했다. 개네들은 자기들이 놀리고 싶은 애들이 있으면 채팅방으로 초대해 괴롭혔다. 자기들은 재미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나도 거기에 초대돼 ‘패드립’을 당한 적이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장애인이라 도망갔다고 했다. 속상했지만 나는 채팅방을 나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애들은 수시로 나를 다시 채팅방에 초대해 나더러 게이니, 여자애니 하면 놀렸다. 그리고 하루한테는 쪽발이는 일본으로 가라고 했다. 하루는 곧장 답을 달았다.

3. 사람책 도서관

사람책이란 사람이 직접 책이 되어, 자유로이 대화하면서 사람책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주제로 내가 사람책이 되어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시> 이야기 속 도훈이라면,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을 들려주거나 'BTS 춤 따라 추기'를 친구들에게 직접 가르쳐 줄 수 있다.

「멍한 하늘」 (#아동학대 #이웃)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1: 하늘이의 손에서 번져 나온 검은색은 무엇을 뜻할까요?

133쪽

아이는 집 안이 궁금한지 유리에 이마를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손이 유리를 만졌다. 흐릿하던 손의 모양이 또렷해졌다. 그 순간 아이의 손에서 뭔가 흘러나왔다.

‘어어!’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나 유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종이에 먹물이 스며들 듯 아이의 손에서 번져 나온 검은색이 유리를 물들였다.

146쪽

갑자기 하늘이 손이 내 무릎 위에 올려졌다. 순간 서늘한 손바닥 느낌에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어쩔지 다리는 꿈쩍할 수 없었다. 차가운 손은 한참을 내 무릎 위에 머물다가 떨어졌다.

“어? 너 어떻게 한 거야?”

무릎에 있던 검붉은 멍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흐려져 있었다. 다 나은 것처럼 보였다. 하늘이는 무릎에 대었던 손을 짝 쥐고 붉어진 얼굴로 가쁜 숨을 내쉬었다.

질문2: 하늘이가 죽은 형의 운동화를 하늘에 던지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155쪽

갑자기 하늘이가 일어나 낡은 운동화를 찾아 들었다.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사람들은 잘 모른대. 그래서 우리 형이 말했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신호를 하늘에 남기자고.”

질문3: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2. 핫시팅

인호, 인호 엄마, 하늘이 등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그들을 초대해 인터뷰 해 봅시다.

등장인물	궁금한 점 또는 해 주고 싶은 말
인호	
인호 엄마	
하늘	

<예시>

인호 엄마: 하늘이가 엄마에게 맞는다는 것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나요? 그런데 알게 되었을 때 바로 돕지 않은 까닭은 무엇 인가요? 끝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늘이를 돕게 되었나요?

하늘: 너는 엄마가 널 때리는데도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니?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말을 하고 싶니? 너에게 인호 형은 어떤 사람이니?

선생님께 핫시팅에서 등장인물이 되어 답을 해 줄 사람을 뽑을 때는 한 명만 뽑지 말고 2~3명을 뽑으면 좋다. 한 친구가 답변을 하기 힘들어하면 다른 친구가 대신 답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 된 친구는 글 속에 근거하여 답을 해야 한다. 글에서 너무 벗어난 답을 하면 텍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어느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좋다. 핫시팅은 등장인물이 되어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느꼈던 감정을 헤아려 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텍스트 이해 정도를 알 수 있어 깊이 읽기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

3. 뒷이야기 상상하여 이어 쓰기

앞으로 하늘이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하며 뒷이야기를 이어 써 봅시다.

「5학년 1반 연애편지 사건」 (#이성교제 #추론)

1. 질문 만들고 이야기 나누기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1: 친구에게 받은 편지를 그 편지를 쓴 친구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줘도 될까요?

질문2: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3: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명하게 고백하거나 거절하는 방법은?

.....

.....

.....

.....

질문4: 이성 친구가 생기면 행복할까요?

.....

.....

.....

.....

질문5: 학교 친구와 사귄 때 학교에서 티를 내는 것이 좋을까요? 비밀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

.....

.....

질문6: 헤어진 이성 친구와 학교나 학원에서 계속 마주쳐야 한다면,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

.....

.....

.....

2. 범인을 찾아라!

찬우의 카드를 몰래 가지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의심 가는 사람과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증거를 글 속에서 찾아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의심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 증거
박찬우	
여은지	
최승운	
방다슬	
서주영	

3. 핫시팅

유형준, 서주영, 최승운, 방다슬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을 써서 그들을 초대해 인터뷰 해 봅시다.

등장인물	궁금한 점 또는 해 주고 싶은 말
유형준	
서주영	
최승운	
방다슬	

<예시> 유형준: 주영이가 준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어땠나요? 최승운이 속마음을 떠보려고 장난으로 주영이가 전학을 간다고 말하고, 몰래 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공통 활동

1. 책 소개하기

단편 중 한 편을 선택하여 소개해 봅시다. 글 내용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리고 추천하는 글이나 별점, 인상 깊은 문장도 넣어 봅시다.



선생님께 책을 소개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소개하는 글을 쓸 수도 있고 책표지를 디자인하거나 포스터 형식의 소개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학생들이 표현하고 싶은 방식으로 개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2. 에세이 쓰기

한 권의 책을 함께 깊이 읽으며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자유롭게 써 봅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즐겁게 참여한 활동을 떠올리며 써 봅시다.